

## 2018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	2018.10.08.
재적위원 정수	11명

1. 일시 : 2018. 10.19.(금) 16:00

2. 장소 : 제 1 회의실

3. 참석자 : 위원장 - 이경호

위 원 - 고재모, 김광희, 홍기국, 박명래, 이찬규, 남효림, 이동규, 최준혁,  
정민철 (이상 10명)

간 사 - 정현석 기획예산과장

4. 불참자 : 이천길(이상 1명)

5. 회의안건

가. 2018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 회의내용

이경호위원장 : 전체 위원 중 10명 참석, 1명 불참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2018학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함.

가. 2018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이경호위원장 :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총장께 설명을 요청함

고재모 위원 :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기금용도변경 및 인출, 지출대비 수입 재원 부족액, 기금변동추이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의 근거하여 적립금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에 의거하여 건축기금 17.8억원을 퇴직기금 6억원과 특정  
목적기금 11,81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함

첫 번째로 퇴직기금 6억원 용도변경(안)을 설명함

교원2명 직원2명으로 명예퇴직금을 예상하여 편성한 금액이며, 단 명  
예퇴직 신청이 없을 경우 기금인출은 하지 않음. 2017년 교원1명과 직  
원5명의 명예퇴직시행으로 총10.86억원을 지출함. 교직원 명예퇴직 시  
행 이후 대략 2년 이후부터는 보수 지출 절감 효과가 발생 됨

두 번째로 특정목적기금 11,81억원의 근거를 설명함

전년도 대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지침에 따른 입학금 감소  
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함. 지출 증가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보수인상, 평가지표 개선사항으로 시간강사로 인상, 교직원 보수  
인상 요인등 11,81억원이 부족하게 됨

본예산 대비 수입재원은 등록금 9억원, 전기이월자금 9.1억원이 증가  
되어 491.4억원에서 509.6억원으로 18.1억원으로 수입이 증가 될 것  
으로 예상됨

지출 세부근거는 보수 부족액 18.9억원, 학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비용,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 교육부 컨  
설팅 이행 전산시스템구축비용 등 관리운영비 6.9억원과 IPP정부투자  
금, 정부일자리센 사업 미집행분 4.1억원으로 교육외 비용 지출 증가  
됨. 본예산 대비 지출은 491.4억원에서 521,4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함

수입은 18.1억원, 지출에서 30억원 증가되어 1.18억의 부족액이 발생  
하여 건축기금에서 특정목적기금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연구기금 4.5억원, 건축기금94.1억원, 장학기  
금 11.7억원, 퇴직기금 6,2천만원 특정목적기금 9,5천만원으로 총112  
억원이었음

2018회계연도 본예산 확정시 건축기금에서 8,04억원은 승인 받은 금  
액 이고, 추가로 11,8억원을 요청하게 되어 총 건축기금에서 25.8억을  
용도전환 하게 됨

2018회계연도 기금 변화를 추정해 보면 기금 잔액은 112.4억원에서  
결산기준 기금잔액은 83,9억원으로 예상 됨

몇년간 우리대학은 대학평가기준 지표중 중요한 교육비환원율과 전임 교원확보율 지표값 상승에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

이경호위원장 : 2018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의견 제시 바람

박명래 위원 : 건축기금을 특수목적자금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에 대한 사안이 아닌 기금 용도변경(안)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보임.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질문함

고재모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등록금을 연도마다 결정할 때와 예산편성(안)이 이사회에 제출 되기전 반드시 대학평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해야 함

박명래 위원 : 등록금수입 감소와 인상요인인 교직원보수, 시간강사료, 최저임금 등을 볼 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 보임

기금이 내년 2월이면 약 83억밖에 남지 않는데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어 심히 우려됨

이경호위원장 : 예산을 줄이는 노력은 전체 교직원들이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을 보시면 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요인인 시간강사료 인상분과 법적 요건인 최저임금과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교직원 보수임

박명래 위원 :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길 원함 예를 들면 급여를 줄이거나 사람 수를 줄이는 등 기본적으로 오르는 것들을 줄이고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추가경정예산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다른 대학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3~4년을 급여를 동결하며 살아 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협성대학교는 매년 급여인상과 명예퇴직 시행을 하며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건축기금을 퇴직기금과 특정목적기금으로 용도 전환 할 경우 향후 문제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형식적인 대안보다는 근본적인 자구책을 원함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을 한다 안한다는 의미가 없으며, 학생들이 믿고 일류학교를 만드는데 있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음

홍기국 위원 : 2018회계연도 우리학교는 등록금수입 약 328억이고 지출은 약 500억

으로 예상됨

학교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정지출 인건비와 교육비환원율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금을 계속해서 인출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교육비환원율의 지표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2015년도 전국158개 대학 중 150위에서 2017년도에는 123위까지 지표값을 개선하였음

2018년 우리대학은 이러한 노력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 이루어 냈음

전체에서 가장 큰 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 법적 요인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공여지책으로 줄인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금년에 청소용역비용 3억이상을 줄였으며, 각 부서의 기타운영비를 비롯하여 일반경비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이 노력중임

2018년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내년부터는 30~4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년보다 내년은 수월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박명래 위원 : 학교의 자구책이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구책임  
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줄일 수 있는가 의문이 듦  
총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최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은 그냥 두고 작은 부분에서 줄이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 보임. 8년간 등록금은 동결인데 학교 시스템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급여시스템, 수당시스템의 변화는 있는가? 극단의 조치 없이 부족하다고만 하는가?  
변화 없는 현 시스템에서 내년에 30~40억 지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스템 변화 없이는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함.  
줄여야 한다. 어디서든 줄이길 원함 말하기 어렵지만 기업 같으면 파산임 그런 부분에서 공유를 했으면 함 이사회와 학교측과 학생들이 공유가 되길 원하며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어려운데 희생을 했구나 인건비가 줄었구나라며 함께 가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유가 되길 바람

정민철 위원 : 경기서울지역 재정관리자 협의회에서 강의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적립금 최대한 아끼고 버텨라였음 이사님과 학교구성원의 입장 모두 이해가됨 그동안 노력으로 교육비환원율 지표 상승시켰으며, 2018년도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약 30억규모의 지원금이 들어오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임. 만약 협성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고 역량강화대학이 되었다면 정원 10%감축과 지원금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임

기금이 내년에는 90억에서 60억이되고 버틸수 있는 시간은 박명래위원장님 말씀대로 4년~5년으로 보임 재정관리자협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5년 이후부터는 30%대학이 급여미지급 사태로 학교가 망가질 것으로 예상됨. 한해라도 아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하며 학교는 외국인 학생 유치와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에 힘쓰길 바람

고재모 위원 : 우리대학의 자구책을 설명함. 첫 번째 외국인학생 300명 유치하여 연간 10억원 증가, 두 번째 계약학과 10억원 증가, 세 번째 IPP 10억원 증가로 총 30억원이상 수입을 증가 시켰으며, 지출에서는 관리운영비를 5년전 대비 100억에서 현재 지금50억 줄이는 노력등을 하고 있음. 총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인건비 왜 고민이 없겠는가?

일단 직원 교원과 직원 수를 줄일 수 없음. 현재 우리대학의 직원 수는 계약직 포함 80명임. 1004명 입학정원인 우리대학 보다 660명 한 세대학교 직원 수가 110명임. 우리는 1004명이지만 직원80명으로 1인당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음

두 번째 교원수는 전임교원확보율을 제시하고 있어 줄일 수 없으며 지표값이 내려갈 경우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 됨

사람을 줄이지 못하면 금액을 줄였는가? 줄이지 못했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노동조합과 학교가 합의로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니 인상분을 주고 인상분 전부를 발전기금으로 환원시킴

그래도 교직원 보수와 관련된 금액을 줄이라고 하시면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 해보겠음

박명래 의원 : 오해가 있는데 금액을 줄이라고 한적 없으며 경영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사람을 줄일 수 있고, 구조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임 금액을 줄이라고 단적으로 말한 적 없음 법인대표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렇게 의견을 냈지만 이사회를 들어가면 여러분의 편임 학생들도 이해가 되면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있음. 1004명의 학생이 4학년까지 간다면 문제없으나 그만두거나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뤘으면 하며 학교를 도와줄 입장이 되고 싶다. 서로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공유하여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야기 하고 싶음

이찬규 의원 :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꿈꿔온 것은 학우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은 맘이었음. 어려운 재정의 학교로부터 예산을 요청하기 어려워 우리 학생회는 식품회사의 간식이벤트에서 1000~2000개씩 간식을 따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며 노력을 해왔음

우리대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으나 외

국민학생들에 관한 관리가 안 되는 현실임.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가마다 종교,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시설, 교육은 어떠한지 묻고 싶음. 학교가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게 노력하길 원함.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이탈율과 새로운 학생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힘든 상황에서도 도서관 열람실 책결상 교체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학교에 감사함

홍기국 의원 : 총학생회장,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세부적으로 준비 못해 죄송함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이탈율등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과 실적들은 부총장님께 말씀해 주셨음. 매년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이 수치는 증가하고 있음.

좀더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이사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께서 5년뒤 어떻게 할건데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이 있어 보이며 금년에 자율개선대학선정이 된 것은 우리대학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보임.

우리가 자율개선대학에 못 들었다면 당장 정원10%감축에 지원금이 없음  
그러나 우리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 정원도 유지하고 보조금도 지원 됨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중에 우리대학만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  
우리 구성원들도 나름 애를 쓰고 학생들과 이사회 도움으로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이 듦

이찬규 위원: 저희 학생회도 자율개선대학선정에 있어 이탈율을 막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응원도 했음  
학교를 믿고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자율개선대학선정이 된 것으로 생각 함.  
자율개선대학선정 이후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라서 희망을 갖고 참석했는데 등록금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어려운 상황을 보니 걱정이 됨

셔틀버스문제, 벤엘의 숲 개발, 건축물매입비 7억5천 이월 내용도 구체적인 해결책과 강구책을 학교에 원함

일반 학우들도 알 수 있도록 자율개선대학선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홍보해 주시고 학교의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믿고 따르도록 하겠음.  
학생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최대한 협조하겠음

최준혁 위원: 이탈율 관련해서 말씀드릴. 융복합으로 인한 이탈율이 높음  
휴학자들이 복학을 했을 때 입학당시의 본인과가 없어진 경우 학업의지가 매우 떨어짐.  
이때 이탈율이 발생함. 이런 학생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융복합학과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 필요함. 학생들 개개인이 존중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정책이 나왔으면 함

이찬규 위원: 소속감이 중요한데 융복합으로 예술대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함. 휴학자들이 복학하면서 본인학과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행사 참여가 저조하고 소속감이 결여되어는 문제가 있었음.

소속감은 학생들에게 있어 시설보다 더 중요함 학교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기 원함. 학생들마다 소속감을 심어줄 무언가가 있다면 이탈율도 막을 수 있다고 봄

최준혁 위원: 학교가 필요한건 이사회의 믿음이며, 학생들이 필요한건 학교의 미래성에 대한 믿음임. 일반 학우들에게도 학교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개선대학선정이 되었다고 홍보했으면 함. 자율개선대학선정 홍보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잘 모름. 학교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오픈했으면 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학교도 학생들의 믿음에 힘입어서 이사회에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고재모 위원: 실무를 담당하시는 교무처장님도 계시는데 일부 학과가 통폐합 되면서 소속감등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음. 그 당시 불가피하게 되었고 하나 실제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소속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함. 학과장회의를 통해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노력 조금이라도 학교에 애착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이경호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2018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최준혁 위원 : 동의함

이찬규 위원 : 재청함

이경호위원장 : 전체 위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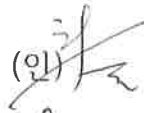
전 체 : 예

이경호위원장 :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이경호위원장 :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음.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에 의견이 없으므로 폐회를 선언함

(폐회시간 17:20)


위원장 이 경 

위원 고 재 모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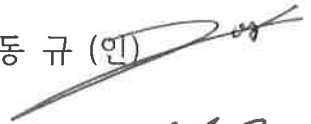
김 광 희 (인) 


홍 기 국 (인) 

박 명 래 (인) 

이 찬 규 (인) 

남 효 림 (인) 

이 동 규 (인) 

최 준 혁 (인) 

정 민 철 (인) 